

露西亞의 哲學과 「톨스토이」의 理性愛[上]

申南澈

내가 이곳에서 『露西亞[러시아]의 哲學』이라고 하는 것은 帝政時代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에 있어서 最初의 哲學者는 『스코보로다』(一七二三—一七九四)이었다. 그는 歐洲를 遍歷하는 동안에 自國이 西歐의 어느 나라보다도 元氣 方面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음을 보고 歸國한 뒤에는 스스로 知己를 모아노코 世事를 論하였다. 佛國, 英國, 獨逸은 各各 그의 『啓蒙時代』를 經過하면서 『양상·레짐』에 對한 抗爭을 繼續하였고 이 抗爭은 一七八九年의 佛國 大革命[프랑스대혁명]으로서 大團圓을 지었었다. 그리하여 칸트 외 이른 바 『世界 公民的』인 新興市民은 그의 『光輝잇는』 發展을 營爲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露西亞에 있어서는 아직 『中世의 暗黑』속에서 絶對인 王權과 敎權이 支配하고 있었다. 이 두개의 世界를 目睹한 『스코보로다』가 國民의 覺醒을 捉한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의 思想이라고 하는 것이 『半神秘的』이고 『半合理的』이기는 하였으나 當時의 西歐哲學思想을 移植하는 先驅를 잡았든 것이다. 그의 뒤를 받어서 『페텔스부룩』과 『모스코』의 大學敎授 等에 依하여 哲學에 對한 關心이 冑어지게 되었다. 이때에 露西亞의 哲學에 最初로 影響을 준 것은 『셸링』과 『헤겔』이었다. 『다비도브』(一七九四—一八六三)는 『셸링』을 『미카엘·바쿠닌』(一八一四—一八九六)과 『알렉산더·헬첸』(一八一二—一八七〇)은 『헤겔』을 이 나라에 紹介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그 紹介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처음에는 그러하였든 것과 같이 아직 初步인 階段을 지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고고츠키』(一八一三—一八八九)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칸트』와 『헤겔』 等の 獨逸 觀念論의 哲學이 嚴密하게 紹介되게 되었고 純正哲學에 對한 著書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 『고고츠키』의 『哲學史』及 『헤겔 哲學概論』은 露西亞의 哲學思想에 적지안흔 足跡을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있어서 一般으로 哲學을 問題삼는 사람들의 머리를 往來한 바 根本思想은 『치체린』(一八二八—一九〇四)에 있어서와 같이 有磯인 生

氣論이 支配的이었다. 卽 『質料와 에넬기』에 關한 論究가 만혔든 것이다. 이 리하야 露西亞의 哲學에 있어서의 第一 期인 셸링, 헤겔의 影響 下에 잇든 時代로부터 第二 期인 『唯物論과 實證論』의 時代로 드러오게 되었고 이 時代의 終末은 卽 辨證法的 唯物論의 歷史的, 社會的인 地盤이 成立되든 때이다. 이 唯物論과 實證論의 時代에 있어서의 이름 잇는 哲學者로서는 『시베리아의 開拓者요, 經濟學者이든 『체르니쉬브스키』(一八一二—一八八九), 왈샤우 及 패텔스부룩大學 敎授 카레예프』(一八五〇?) 及 『필립포브』(一八五八—一九〇三)이었다. 이들은 모다 人性論的, 生物學的으로 歷史哲學을 主張하고 또 『現實의 哲學』을 말하였다. 『카레예프』는 生物學的 民族心理學에서 人間生活의 變化의 意味를 探求하여 歷史哲學의 根本 問題를 卍定하라고 하였고, 『필립포브』는 卍化의 法卍 及 心的現象의 物的 卍定の 法卍科學의 二大 根本 原則이라고 하는 生氣論을 主張하였든 것이다. 卍卍에 잇어서는 哲學者는 大概가 生物學的, 生氣論的으로 『에넬기』의 問題를 重要視하였섯다. 그 中에서 가장 有名한 사람은 『니콜라우스그로트』(一八五二—一八九九)이다. 그는 物, 心 兩 에넬기의 變化를 認定한다. 그는 感覺, 表象, 主觀的 努力 及 客觀的 運動을 『心的인 것』의 卍運動의 네 개의 모멘트라고 하였다.